

|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소개 |

관심 집중된 국민연금 개혁, 사회적 대화로 방안 마련

송해순 전문위원

발족개요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약칭, 연금개혁특위)는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18.10.12.)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의결한 후, 제1차~제3차 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구성을 정리했다. 그리고 10월 30일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크다. 노후소득보장은 세대간·계층간 연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할 전 사회적 과제이므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해답을 찾아가고자 구성했다.

주요의제

논의의제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서는 국민연금 노후소득 보장 역할과 지속가능성을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에서는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을 선정했다.

위원구성

위원은 장지연 위원장, 노·사 각 2명, 청년 2명, 비사업장가입자 4명, 정부 3명 등 17명으로 구성했다.

구분	위원 명단
위원장(1)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노동계(2)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미정
경영계(2)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 박재근 (대한상의 상무이사)
청년(2)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비사업장 가입자(4)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정부(3)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김경선(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이역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공익(3)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 교수)
간사위원(1)	송해순 전문위원

논의시한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시행령 제11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근거하여 최대 6개월('18.10.30.~'19.4.29)이며, 필요한 경우 3개월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향후계획

공적연금에 대한 위원별(계층) 의견 청취를 통해 인식 수준을 확인하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의 역할 수준 및 노후소득보장 최저수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